민주당 "5일 본회의 최소 2개 개혁법 처리"상법·사법개혁법 유력

先민생법안 처리서 기류 변화…민생법안은 3월 집중 처리 전략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설前 상임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개혁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이 중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12일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에 개혁법안은 설(17일) 연휴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12일 본회의로는 법안 처리를 다 못할 것 같아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한 뒤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의장에게 강하게 압박한 걸로 보인다"며 "우리는 2월에는 처음 예정했던 대로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심귀영 기자

삼성, 국내·해외 법인 간 문서 '영어 단일화' 추진

내달부터 삼성전자·디스플레이·바이오로직스 적용…계열사로 확대

한글·영어 병용 폐지…업무 비효율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삼성이 해외 법인 뿐 아니라 국내 법인과 주고 받는 문서에서도 영어만 사용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내달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개사부터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이 주고 받는 문서들을 모두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사내 공지했다.

기존에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용해 사용했는데 영어만 쓰기로 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다른 관계사들에도 이 같은 조치를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회사는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언어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지난 2023년 해외 법인 내부 보고 및 회의 자료 등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파운드리사업부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일부 부서는 지난해부터 문서 작성과 회의에서 영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직원 수는 13만7350명으로, 국내 법인 직원 수(12만5297명)보다 많다.

송민수 기자

LG U+, 경찰청 '보이스 원티드' 캠페인에 동참한다

수집한 보이스피싱범 음성 데이터는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고도화에 활용

LG유플러스는 경찰청이 진행하는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 원티드는 경찰청이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수집해 성문분석으로 범죄자를 특정하고 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대국민 제보 캠페인이다. 제보를 희망하는 국민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녹음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된다.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고객의 일상 속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알리고자 동참하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공식 앱 U+one의 플러스 메뉴를 통해 이번 캠페인의 상세 내용과 제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AI 무료 통화앱 '익시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별도의 녹음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도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돼 보다 간편하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수집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 데이터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캠페인 안내와 함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잡았다 목소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보스 QC 헤드폰, 렉슨 조명 램프, 백자 달항아리·포푸리, 네이버페이 1천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협업을 포함해 AI무료 통화앱 '익시오'로 수집된 보이스피싱 의심범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원기 LG유플러스디지털CX 트라이브장(담당)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LG유플러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 방지 분석시스템 내 악성 앱 제어 서버 추적 솔루션을 가동해 악성 앱 제어 서버 800여 개를 추적·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악성 앱 설치로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 고객 3만 3천여명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해 피해를 막는 구제활동을 도왔다.

이영진 기자

한전, 미국 괌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공

모회사 보증없는 PF 체결로 프로젝트 사업성 및 금융 조달 역량 입증

국내기업 주도의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 구현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산 기대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대해 총 약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이하 PF)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PF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조건의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Guam Power Authority)이 발주한 전력사업으로 괌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괌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되며,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전력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이번 모델은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팀 코리아' 협업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북미 지역 내 유사 전력사업 수주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강원 광동댐 현장점검, 봄철 가뭄 선제적

마른 겨울 장기화에 가뭄 발생 가능성 사전 대비,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만전

단기 대응 넘어 지하수저류댐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

강원 동해안 지역에 메마른 건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1월 30일 강원 남부권(태백·삼척·정선)의 주 식수원인 삼척시 광동댐을 방문해 저수 상황을 확인하고 물 공급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영동 지역의 마른 겨울이 길어지면서, 발생 가능한 가뭄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안정적 물 공급체계를 사전에 완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평균 저수량은 전년 대비 122%, 용수댐은 101% 수준을 유지하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상황이다. 다만, 태백과 속초를 비롯한 강원 일부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마른 겨울이 심화하면서 봄 가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영동 지역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장점검이 진행된 광동댐은 현재 저수율이 50% 수준에 보이고 있으나, 기상 추이에 따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저수율과 취수시설, 가뭄 단계별 용수 공급 시나리오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예년보다 한발 앞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용수확보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 비상 취수시설 가동 태세 점검 ▲ 골지천 등 인근 하천수 활용 ▲ 관정 개발 및 이동식 급수 차량 선제적 배치 ▲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책을 넘어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단계적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서·산간 등 물 취약 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영동 지역의 기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봄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가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에 불편이 겪는 일이 없도록 공사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우리銀, 키스트미래재단에 10억 쾌척… '과학기술인재 키운다'

KIST와의 오랜 동반자 관계 재확인 및 과학기술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여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본관에서 키스트미래재단에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나눔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과 오상록 KIST 원장,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키스트미래재단은 KIST의 설립 취지를 계승해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연구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다.

우리은행은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금융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기탁은 오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은 "우리은행은 KIST의 탄생부터 함께해온 금융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여정을 응원해왔다"며, "이번 기금이 연구와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적 금융의 밑거름이 될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